

「建築士 有感」

姜 哲 求 / 동우건축설계사무소 · 소장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설계사(設計士)란 용어를 쓰는 일이 있다. 일반적인 어휘구성에서 각기 다른 뜻을 갖는 두 가지 말을 合成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은 점점 정보량이 확장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이겠으나 그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좀더 신중하여야겠으며 더구나 우리 직업에 관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에는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를 자·타가 부르는 정확한 용어는 「건축사」이다. 이 용어와 近似한 말로는 「설계사」, 「설계가」(대백과사전에 이런 용어가 있다), 「설계자」, 「건축가」, 「설계기사」, 「설계기술자」 등등... 이 중에서도 아마 「설계사」라는 말이 시중에서는 「건축사」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설계사」의 어감은 「제도사」와 비슷하여 기능직의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쉽다. 말이란 자주 쓰고 보면 그대로 정착되므로 잘못하면 우리의 이름까지도 같 판이다.

뭐 새롭게 비분강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무슨 현상설계에 어떤 「설계사」가 당선되었다느니 하면 신경을 끈추 세워서 「이런 무식한 記者 양반

들 같으니라구...」 하며 개탄하기 일췌이다.

UDC(국제도서분류기호)나 KDC(한국도서분류기호)에 보면 건축에 관하여 큰 항목으로 建築工学과 建築術로 분류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분류에 상관없이 「ARCHITECT」로 한마디에 표현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工学이나 術이나에 따라 명칭이 달라 工学 쪽이 강할 경우에는 「設計士」, 術쪽이 강할 경우에는 「建築家」라고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쪽에 치우침이 없는 우리로서는 「建築士」라는 말이 算術平均的인 合成語로서 훌륭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두고 왜 「설계사」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지 — . 결국은 인식부족으로 돌릴 수 밖에 없지만, 많은 건축물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는 「建築士」라는 말이 아직도 생소하게 들리므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검사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영감」이라 부르고 변호사들은 「아무개변호사」라고 뒷전에 자기들의 직업명을 붙이며, 博士는 꼭 이름과 같이 따라다니니 자연히 선전되는데 우리는 「○○○건축사」라고 하기에 는 조금 생소하다.

그러나 자꾸 쓰다보면 금방 익혀질 것이므로 앞으로는 상호존칭에 포함하여 「×건축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우스개 소리에 「專門職業」로는 建築士가 웃으며 돈 번다」라는 말이 있다. 의사는 몸의 어디가 불편해서 쩡그리고 찾아오는 환자를 상대하며, 변호사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만 찾아가는데, 건축사에게는 돈 벌어 어떻게 하면 근사한 집을 짓는가 하고 싱글벙글하는 사람만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웃으며 돈번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돈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법정 설계비 이상으로 받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이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인지 모르겠다.

요즈음 세상에 「사」자가 붙은 직업이 많이 나도는데 이것도 경계할 일이다.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 평가되기 쉽기 때문이다. 稅務士,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공인중개사, 영양사, 운전사...

어떻게 하면 고고하게 진흙창에 흠안묻히고 살아 갈 수 있을까. 아마도 해결책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냥 「建築士」로 있게 될 뿐이다.

